

# 광주형자유학기 우수사례나눠

### 자유학년제 성과 나눔을 통해 내실화 방안 모색 메이커 교육·공간 혁신 프로그램 활동 등



광주시교육청이 3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광주형자유학년제 성과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나눔 행사에는 자유학년제를 운영한 학교 업무 담당자와 자유학년제 교사 연구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자유학기 활동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자유학년제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광주기술교사연구회 광기유 교사는 교사 연구회를 통해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메이커 교육 및 공간 혁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개발해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자유학년제 내실화를 위한 월드카페 토론에서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자유학년제 평가, 교과 융합에 중점을 둔 주제 선택 활동, 학생의 선택을 반영한 진로 선택 활동'을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여, 다양하고 의미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우재학 과장은 "자유학년제는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평가를 바탕으로 학생의 진로를 설계하는 역할을 기르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구성된 교사 공동체가 자료 개발과 사례 나눔을 통해 자유학년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3년 자유학기제를 시작으로 2018년부터 전체 중학교가 자유학년제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교원 및 학부모 홍보 자료 보급, 우수사례 모음자료 개발, 학부모 및 교원 연수 등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조인호 기자

## 광주중앙도서관 겨울독서교실 운영

### 오늘부터 선착순 모집

광주중앙도서관이 내년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독서교실의 주제는 '놀이 속 숨은 책'로 대상은 초등학교 3~5학년 학생들이며 12월 5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와 어린이실에서 선착순 모집한다.

겨울독서교실에서는 단순히 읽

고 쓰기를 넘어 놀이 활동 중심의 새로운 독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듈별 릴레이 이야기 짓기, 동시 낭독, 영화가 된 책 읽기 및 감상, 생활요리 등 다양한 독후활동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래놀이 체험은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컴퓨터게임과 스마트폰에 길들여진 아이들의 숨은 감성을 깨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예정이다.

다. 독서교실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매회 특색 있게 진행되고 있다. 중앙도서관 이상순 관장은 "책과 떠나는 신나는 전래 놀이를 통해 협동심과 배려 등 모두 함께 즐기는 놀이 문화가 널리 퍼지기를 바라며 긴 겨울방학 동안 편안한 휴식처로 도서관을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광주중앙도서관 어린이실(☎607-1342)로 문의하면 된다.

## 여수교육청, 학부모 대상 놀이교육전문지도사 과정 운영

여수교육청은 3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학부모 50명을 대상으로 놀이교육전문지도사2급 과정을 운영한다.

학부모 놀이교육 연수는 주제적인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1차시: 놀이 인문학, 놀이와 창의성 2차시: 놀이의 치유력, 놀이와 협동 3차시: 놀이와 자

연, 다룰 세계놀이문화 프로그램 등 "놀이가 공부다! 스토리가 있는 놀이보따리 마당" 주제로 이루어졌다.

세계놀이문화진흥원 다놀 전영숙 대표 강사는 "놀이교육전문지도사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인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인성은 놀이를 통해 형성된

을 특강을 통해 강조하였다.

참석한 학부모 김00은 TV만 틀어주는 엄마, 핸드폰 게임이 아닌 놀아주는 엄마가 되기 위해 놀이를 배우고 싶었다며, 나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대 교육장은 "놀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을 돕겠다"고 밝혔다.

## 고흥 학부모 네트워크 결과나눔 워크숍 성료



고흥교육지원청이 3일 대회의실에서 각급 학교 학부모회장과 업무담당교사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부모 네트워크 결과나눔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고흥학부모회 주관으로 모든 기획과 진행이 이뤄졌다. 2019년 1년 동안의 학부모회 학교참여 활동을 되돌아보

고, 2020년 활동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1부에서는 이명진 성악가(동강중 교사)의 아름다운 노래를 시작으로, 변정빈 교육지원과장이 '학교학부회의 역할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2부에서는 2019년 학교학부모

회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봉래초, 풍양초, 고흥중, 고흥고 학부모회장이 발표자로 나와 활동과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성과와 어려웠던 점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2020년 학부모회 운영방향에 대해 원탁토론이 이뤄졌다.

김형심 고흥학부모회 연합회장은 "2019년은 학부모회 조례제정 원년으로 활동에 시행착오와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다. 이를 교훈삼아 2020년에는 힘찬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연대를 강조했다.

정길주 교육장은 "학생중심의 혁신교육과 농어촌 작은학교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또한, "학부모님들이 고흥교육의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고흥=한윤섭 기자



## 그림책에 빠진 엄마들, 그림책으로 자라는 순천 아이들

순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는 순천 관내 유·초·중·고 학부모 24명을 대상으로 10월 15일 ~ 12월 13일 까지 순천생태문화교육원

에서 학부모 아카데미(그림책교육지도사 2급 과정, 50시간)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순천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학부모 아카데미(그림책교육지도사 자격 과정)를 통해 2018년에는 21명, 2019년에는 34명의 학부모가 그림책지도사 3급 자격을 취득했다. 자격을 취득한 학부모들은 그림책특공대 학부모 동아리를 결성하여 학교 및 마을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활동

과 방학 중 학교도서관 활용 책놀이 학부모 강사로 적극적인 재능기부활동을 진행 중이다.

배움의 열기가 가득한 학부모들의 희망에 의해 2급 과정을 개설하여 (사)한국그림책문화협회 전문강사들의 열정적인 강의로 연수를 진행 중이다.

강의를 진행 중인 김소연 이사는 "그림책 연수를 통해 공동체가 함께 키우기를 실천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한편의 아름다운 그림책 같다"며 남은 연수일까지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수에 참가한 외서초 학부모

이영순은 "어렵게만 생각했던 그림책 지도에 흥미를 느끼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서 2급 자격과정에 도전하게 되었다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고 역량을 강화시켜 주신 순천교육지원청에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천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 역량강화와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부모 참여와 만족도가 높으며, 자발적인 학부모 네트워크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